

언론 사람

2018
vol.220

10

04

인터뷰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09

세상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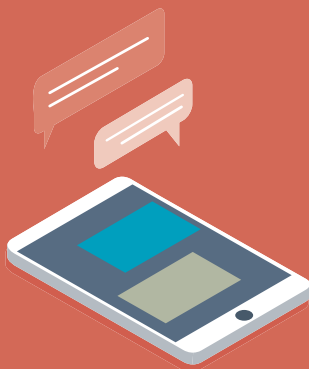
성공인가, 성장인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시선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광주광역시 의재미술관



CONTENTS

2018 October

Vol.220



언론+



사람+

03 취임사

04 인터뷰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14 NEWS

위원동정 | 위원회 뉴스

15 Close-Up

단청(丹靑)

06 언론중재위원회 NOW

2018년 위원총회 개최,
이석형 신임 언론중재위원장 선출

07 언론법 이모저모

인터넷에서의 타인 행세

08 드라마 속 숨은 이야기

드라마 속 탐정

09 세상읽기

성공인가, 성장인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시선

10 트렌드, 트렌드, 트렌드!

신박하고 진실된 경험을
사고 싶은 밀레니얼 세대

11 푸드텔링

햄버거

12 건축이 아름다운 미술관

광주광역시 의재미술관

발행인 이석형 | 편집인 권오근 | 발행일 2018년 10월 1일 |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 02-397-3114 F. 02-397-3069)
구독신청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조정·
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이석형 위원장 취임사

존경하는 중재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위임으로 새로이 위원장을 맡게 된 **이석형**입니다.

능력 있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난 임기동안 소임을 다해주신 전임 중재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매우 성숙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와 보도의 치열한 경쟁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그만큼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국민의 권리인식과 감수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최근 어느 연구소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관련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무려 5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침해한 언론분쟁 조정사건을 공정·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많은 피해상당과 예방교육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줄이고 국민 신뢰와 통합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와 같은 높은 평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열성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오신 중재위원님들과 사무처의 부단한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재위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그 변화를 가능하기 어려운 미디어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기존의 언론 뿐 아니라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손쉽게 온갖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내밀한 사생활의 자유까지도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또한 치명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그만큼 커졌습니다. 개인의 인격권 등을 그 침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면서 자유롭게 건강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 위원회에게도 부여된 시대적 과제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더욱 실력을 기르고 겸손과 친절과 헌신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어 실시간으로 야기되는 각종 언론 보도 조정·중재사건을 더욱 면밀하고 정확하게 살피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중재위원회가 더욱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국가 사회 전반의 민주적 발전과 국민 통합과 행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중재위원 여러분의 보다 열정적인 동참과 분발을 기대하며 늘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어려운 결심으로 총회에 참석해주신 중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6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 석 형

한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한글이라는 우리 민족
최고의 자산으로 승화한지 올해로 572돌을 맞이했다.
국어학자로서 오랜 기간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의
통일에 대해 연구하다 제11대 국립국어원장으로 취임한
소강춘 원장을 만나 신조어와 외국어가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우리말의 가치에 대해 들어보았다.

진행 | 홍보팀 남승균 팀장 사진 및 정리 | 홍보팀 윤은자 에디터

Q | 지난 8월 27일 제11대 국립국어원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국립국어원에 대한 소개와 국립국어원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국립국어원은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국어로 생산된 언어문화 자원을 수집해 우리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우선 우리 국민이 국어를 쉽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2011년부터 많이 사용하는 말들을 표준어로 추가해 왔습니다. ‘짜장면’, ‘임새’, ‘마실’ 같은 단어가 표준어가 되었지요. 그런데 표준어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방언은 격이 낮은 말이라는 편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며, 국어 문화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 우리말의 규범을 잘 정비하는 한편, ‘우리말샘 사전’을 통해서도 지역어나 신조어까지 포함해 우리말의 범위를 넓혀 시대에 맞는 우리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삼고자 합니다.

Q | 남북한과 중국의 한국어 통일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깊은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여 년간 분단된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사실 국어 분야에서는 90년대부터 이미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지난 1994년 국립국어원 주최로 열린 컴퓨터 처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북측 학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언어 및 정보통신 전문가들이 참여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용

어, 컴퓨터 자판, 글꼴 등의 통합 문제를 논의했죠. 그 당시에도 남북한 언어는 일부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일상 언어의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립국어원은 한국어의 통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언어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남북 전문용어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의 표준어·지역어까지 포함한 공용어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사전으로 제작해 보고자 합니다.

Q |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젊은 세대는 우리말을 축약·변형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지고, 일부에서는 국어의 근간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말의 변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환경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어느 시대나 새 말이 생겨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그에 맞는 단어가 생깁니다. 새로운 말이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해서 사용되어 우리말을 풍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요. 줄임말도 인터넷 환경에 맞게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려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변형한 말로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ㅇ, ㅇㅈ(응, 인정)’, ‘ㄱㄱ(고고)’처럼 초성만으로 나타낸 말은 어떤 의미인지 금방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단어의 글자를 모양이 비슷하게 바꿔 쓸 때도 있는데요. ‘귀엽다’를 ‘커엽다’로, ‘멍멍이’를 ‘탱탱이’로 표기한다면 얼른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방송 자막에서도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언론마저 이런 추세에



소강준
국립국어원장

- 국립국어원장
- 前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장
- 前 국어문화원연합회장

편승한다면 국민의 품격 있는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보는 방송을 포함하여, 언론에서도 쉽고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하면 국민들의 언어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개성과 독창성도 좋지만, 언어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쉽게 바꿀 수 없는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서로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Q |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를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언어학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 세종대왕께서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지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언어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구이자 약속입니다.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사회적 약속이 바로 서야 합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하고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품격, 나아가 개개인의 인격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언론인이든 일반 국민이든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진정한 소통을 위해 일상의 언어를 살필 때 우리말과 한글의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Q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도 법률용어가 등장하면 민원인들이 다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를 순화하여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A | '아국', '수의시담'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가

격협'이라는 뜻인데요. 이와 같이 쉬운 말이 있는데도 어려운 표현을 써서 정부와 국민 간에 소통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정용어를 생산하는 주체인 공무원부터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쉬운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등 쉬운 말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요. 또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정부 전자 결재 시스템이나 누리집(홈페이지) 등에도 행정용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Q | 요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결하고 명료한 글쓰기를 바라는데요. 좋은 글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 요즘은 글쓰기의 기술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이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쓴 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육하원칙을 따르면 됩니다. 언론인들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사를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합니다만, 육하원칙은 언론인뿐만 아니라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을 하고, 그 결과를 옮겨 쓰다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Q |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A | 10월 9일을 한글날로 삼은 것은 1940년 7월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을 보면 훈민정음을 9월 상한(上澣)에 반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계산해 1945년부터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삼고 있지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당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된 훈민정음 해례본

대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였습니다. 이처럼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종대왕은 출산한 관청 노비에게 100일의 휴가를 주었을 정도로 애민정신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노비의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30일이나 주었지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문자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필요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말과 한글을 통해 사람을 아끼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먼저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

2018년 위원총회 개최, 이석형 신임 언론중재위원장 선출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월 17일 위원총회에서 제16대 위원장으로 이석형 위원(서울제4중재부, 변호사)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석형 위원장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감사원 감사위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겸 시민권익센터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위원총회에서 감사,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하여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였다. 명단은 아래와 같다.

- **감사(2명)** : 김철웅(서울6부), 이미현(부산) 위원
- **운영위원(9명)** : 이석형 위원장, 송중문 부위원장(대전), 조성은(서울2부), 김형훈(서울5부), 이동원(대구), 송대근(경기), 김학성(강원), 김선남(전북), 김영미(경남) 위원
- **시정권고위원(7명)** : 이석형 위원장, 황병선 부위원장(서울1부), 권정숙(서울1부), 김영학(서울3부), 김영성(서울6부), 안승국(서울7부), 민영(서울8부) 위원

신임 중재위원 위촉

9월 1일자로 중재위원 49명(서울 19명, 지역 30명)이 새로 위촉되었다. 위원 임기는 2018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이다.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서울제1중재부	최석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정숙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
서울제2중재부	이우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장희	법무법인 송담 대표변호사
서울제3중재부	김영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중	법무법인(유) 산경 변호사
서울제4중재부	박병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석형	법무법인(유) 산경 대표변호사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서울제5중재부	관란주*	법무법인 민 변호사
	김창희	전 동아일보 국제부장
서울제6중재부	박종권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철웅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서울제7중재부	황기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경	전 KTV 방송제작부장
	안승국*	법무법인 두레 변호사
	강소영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서울제8중재부	서경주	전 광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최승재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재부	성명	주요 경력
부산중재부	전상훈*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병윤	전 국제신문 논설고문
	전정숙*	법무법인 정맥 변호사
	이미현	이미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구중재부	강동명*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동원	이동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장원	대구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광주중재부	박길성*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경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서애련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대전중재부	염원섭*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주영	법무법인 둔산 변호사(공동대표)
경기중재부	권덕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미애	장미애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미*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원중재부	이광식	전 강원도민일보 논설실장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충북중재부	지영남*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일*	전 충청타임즈 대표이사 사장
	류성용	법무법인 청풍로펌 구성원 변호사
전북중재부	김성중	전 전북일보 편집국 총괄부장
	정제훈	법무법인 호림 변호사
경남중재부	황영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안차수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윤희각	부산외대 한국어문화학과 교수
	조정현	법무법인 창해 대표변호사
제주중재부	김영미	법률사무소 청안 변호사
	고영철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강문숙	강문숙 법률사무소 변호사

*표시 중재위원은 연임

인터넷에서의 타인 행세

김주연 | 변호사



몇 달 전 재미있는 판례를 보았다. A가 대학 동기인 B인 척 가장하여 일베사이트에 접속해 글을 올린 것이다. A는 B가 평소에 쓰는 아이디를 사용해 자신이 몇 학번인데 동기들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고, 머리는 무슨 색으로 염색했다는 떡밥을 날리며 B인 척을 했다. 그리고는 욕설과 함께 과 학생들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A는 이 게시글을 다른 동기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도 했다. 1, 2심은 A가 B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왜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았을까. B는 졸지에 일베사이트에 같은 과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동기로부터 비난의 눈초리를 받을 텐데 말이다. 바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대법원판결의 답이 있다. A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재판부는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해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가 피해자 B를 사칭해 마치 B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해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률로써 규정된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터넷에서의 타인 사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C라는 여성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에게 새 여자친구 D가 생긴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소개팅 앱에서 D인 척 하면서 D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몇 남자들에게 뿌린 일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적이 있었다. 이때도 법원은 C가 D인 척했을 뿐, D에 대한 사실을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세계에서 타인 사칭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타인 사칭’에 대해 처벌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 타인 사칭으로 인해 별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게시글 내용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타인 행세를 하면서 제3자에게 사기를 쳐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거나 하는 경우에는 각각 명예훼손죄,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하다. 만일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했다면 주민등록법으로 처벌은 가능하다. 타인사칭 행위에 대

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상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실무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사이버 수사 전담관들은 이런 사례가 1년에 수백 건씩 접수되는데, 대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권유한다고 한다.

반면에, 타인 사칭을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사칭 계정을 만들면 ‘아이디 사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사칭을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되지는 못했다. 형사처벌은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칭을 당한 개인의 피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만 의율하기는 사실 부족한 감이 있어 보인다. 손해를 입증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이용해 나인 척한다면 소름 끼치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마치 나를 가장하여 다른 이를 욕한 경우에, 그 다른 이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현행법상 처벌이 힘들다. 정작 내가 다른 이를 욕한 사람이라는 부당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인터넷과 우리 생활과의 접점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로파일 스쿼팅(Profile-Squatting, 인터넷, SNS에서 타인으로 사칭하는 행위)의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수위의 규제를 고민해 볼 때가 된 듯하다. 

드라마 속 탐정

유선주 | 칼럼니스트



*출처 : BBC드라마 <셜록>

탐정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추리소설 마니아가 아니어도 유명한 탐정 캐릭터 이름 서넛 정도는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탐정은 아마도 셜록 홈즈겠죠. 코난 도일의 원작 소설들을 모티브 삼아 다양한 홈즈 캐릭터가 영상화되었는데, 영국 BBC에서 제작한 <셜록> 시리즈는 KBS를 통해 한국에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도 탐정이라고 하면 주연을 맡았던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얼굴부터 떠오르네요.

탐정은 대단히 매력적인 캐릭터지만 한국 드라마에는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거나, 정보원·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흥신소와 선을 긋고 '민간조사원'이라는 형태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지만요, 자격과 업무 범위를 명시한 관련법이 없어 국회의 입법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전 추리물로 익숙한 탐정의 능력은 드라마 속에서는 여러 분야의 직업으로 나뉘어서 흡수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자문탐정'이라고 했던 홈즈의 직업은 수사 장르물에 종종 등장하는 프로파일러와 비슷하죠. 현실에서 아무

리 뛰어난 추리력을 뽐내도 강력범죄 사건의 자료를 얻고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아마추어 탐정 캐릭터들은 경찰을 꿈꾸거나 경찰 지인을 두고 경찰서를 기웃거립니다. 시즌 2까지 방영된 KBS <추리의 여왕>은 평범한 주부 유설옥(최강희)이 평범치 않은 눈썰미와 추리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전개였죠. 경찰공무원 시험에 자주 떨어지지만 하는 설옥은 형사 하완승(권상우)과 아웅다웅하며 점차 커다란 사건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설옥과 완승은 셜록과 왓슨 콤비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범죄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직업에서 셜록 홈즈같은 추리력을 보여주는 예도 있습니다. 2013년 JTBC <세계의 끝>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중 강주헌 탐장(윤제문)은 '질병관리본부의 셜록 홈즈'로 불리는 인물이지요. 강주헌은 첫 출근한 신입 조사관 이나현(장경아)을 잠깐 본 것만으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떻게 출근했는지 단숨에 알아맞춥니다. 신발에 묻은 진흙으로 인근 지역 어디를 들렀는지 특정해내는 모습은 셜록 홈즈의 첫 시리즈인 '주홍색 연구'에서 왓슨을 처음 만난 셜록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군의관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파악하는 대목과 바지에 튼 흙탕물로 런던의 어느 구역에서 튼 얼룩인지 설명하는 부분과 닮아있습니다.

탐정업이 흥신소라는 형태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드라마 속 탐정들도 이를 반영합니다. 2016년 OCN에서 방영한

<뱀파이어 탐정>에서 옹구형(오정세)은 "우리 B급 흥신소가 아니야. 품격있는 탐정이지."라고 말하면서도 배우자 외도 증거를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아 파파라치처럼 몰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극 중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뱀파이어가 되는 인자를 주사 받은 탐정 윤산(이준)은 현장에 남겨진 혈흔으로 그 장소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잔상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게 되는데요, 사실 탐정이라기 보다는 초능력자에 가까운 설정이라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의 국내 탐정업이 처한 상황과 배경을 가장 꼼꼼하게 짚는 드라마는 9월 5일부터 방영 중인 KBS <오늘의 탐정>입니다. "우리나라에 탐정이 어딴데요. 얼마 전에 탐정이라는 명칭 쓰지 말라고 법원에서 판결도 났던데?"라는 대사는 지난 7월에 있었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가리킵니다. 곧 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거고, 유망직종이라는 기대를 하고 탐정업에 뛰어든 이다일(최다니엘)은 현실에 실망하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행정사와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죠. 이러한 제약과 조건들은 막연한 히어로였던 탐정 캐릭터에 이 전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직업인의 상을 부여합니다. 비록 <오늘의 탐정>은 드라마 속에서 초현실적 존재인 '생령'을 추적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한국형 탐정 드라마들이 추리력만큼이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의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다루길 바라는 겁니다. 🇰🇷

성공인가, 성장인가? 세상을 보는 두 가지 시선

손관승 | 칼럼니스트 · 작가, 前 언론중재위원

나의 지식냉장고는 얼마나 신선한가? 냉장고에 넣어둔 지 오래된 식재료는 상하거나 부패의 위험성이 있는 것처럼, 지식냉장고에도 낡은 정보와 지식이 가득하면 위험하다. 많은 지식인의 지식냉장고에는 오래된 것들로 가득하다.

한국에서 1년에 나오는 책은 8만 종이 넘는다. 공공도서관은 1,050개, 작은 도서관은 전국에 6,400여 개로, 매년 50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학교 도서관은 1만1000개가 넘는다. 그런데도 한국인 3명 가운데 한 명은 일 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책을 읽지 않아도 생존 가능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지식냉장고에 신선한 것들로 가득한 것처럼 행세한다. 새롭게 읽은 것보다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떠든다. 최신 서적을 읽지 않고 요약된 것들만 보고도 아는 척한다. 영어로 'overstatement'라고 하는 지적인 허세다. 평소 사용하지도 않고, 본인도 정확한 뜻을 모르는 어려운 고사성어를 말해야 뭔가 그럴듯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남들에게 우둔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잘난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 까닭이다. 자신의 지식냉장고가 전혀 순환되지 않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것인데도, 안타깝게도 본인만 모른다.

과거의 명성은 흠사 생선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특히 현대의 지식은 휘발성이 강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방 증발해버린다. 꾸준히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과거의 평판을 비용으로 새로운 자리를 요구하는 일들이 있다. 명문대 졸업장 하나로 평생 우러먹는 사람과 옛날 히트곡 하나로 계속 무대에 서려는 가수가 뭐가 다른가? 옛날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 몰라도 현재는 눈길도 가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그 성공이 높고 빠른 것을 의미하

고, 자신의 성장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성공을 추구하지만, 성장을 멈춘 사람들에게서는 매력을 못 느낀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것들에 의미를 찾고 내 일에 긍지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 흔한 출세주의자일 뿐이다.

부끄러운 것은 나이가 아니다. 나이를 먹어도 성장하려 하지 않고 과거에 연연해 하는 습관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유감스럽지만 빨리 자리를 뜨고 싶다. 우리는 모두 과거로부터 왔지만,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힘들다면 그는 분명 행복하지 않은 거다. 과거에는 지나친 자기학대가 두드러졌다면, 지금은 자기연민이 강한 시대다. '워라벨'(work-life balance) 같은 말들은 분명 뜻이 훌륭하고, 경청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상업주의에 속지 않아야 한다. 진정한 워라벨은 해외여행을 가지 않으면 마치 패배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소비주의가 아니다. 절제되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규칙적으로 살면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다. 지식냉장고를 꾸준히 관리하는 삶이란 결국 소박한 삶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워라벨의 삶을 살고 있는지 더욱 의심해 봐야 한다. 자신을 너무 학대해도

문제지만 스스로를 지나치게 미화해도 문제다. 나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속 가능해야 한 것은 직장과 상품만이 아니다. 개인도 브랜드다. 성장하지 않는 브랜드는 한계가 있다. 오래 달리지 못한다. 성공을 원하는가,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나의 지식냉장고는 묻는다. 



신박하고 진실된 경험을 사고 싶은 밀레니얼 세대

박진수 | 대학내일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미국 이벤트 플랫폼 업체 Evenbrite에서 미국 전역의 밀레니얼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세대는 경험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이벤트에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벤트에 호의적이다. 자신들의 가치관인 '행복하고 충실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 이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추억을 만들고 친구와 공유하는 것이다. 답변자 중 78%가 이상적인 이벤트에 돈을 쓰겠다고 답변했으며, 55%는 이벤트나 경험에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경험주의 마케팅이란 새로운 용어가 업계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복체험 프로그램 '설화단장'〉

일례로 한 화장품 업체의 색다른 체험마케팅이 밀레니얼 세대로부터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선시대 궁중 예복이나 미인도 속 화려한 한복 등을 직접 선택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예약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평소 접하기 힘든 귀한 옷차림을 직접 경험해 보고픈 밀레니얼에게 신박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체험형 이벤트이다.

미국 유통업체 주도권을 아마존에 내어준 타겟(Target) 백화점은 밀레니얼 세대와 더욱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 올 상반기, 미 전역 10개 매장에 AR기술이 적용된 뷰티 스튜디오를 새롭게 런칭하여 밀레니얼이 매장에서 질적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 매장 서비스 전략을 시도하였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아름다워지기 위한 통합적 경험을 제공하는 매장으로 거듭나려는 것이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VR 역시 물리적 경험 중심으로 서비스 전략을 전환하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다. iFly라는 인도어 스카이다이빙 업체는 구글 VR기기를 활용해 가상의 스카이다이빙 체험

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Fox사와 Void사도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에서 스타워즈와 같은 영화 속 공간을 VR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VR을 통해 경험하는 것 자체가 신박함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의 농도나 몰입감을 더욱 배가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iFly VR 스카이다이빙 체험 서비스〉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에게 특별한 경험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나의 일상을 더욱 멋지게 인증하려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꽤 색다르고 재미있으며 효과적인 인증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밀레니얼에겐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SNS 플랫폼은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는데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 자체가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밀레니얼의 라이프 스타일 역시 신박하고 진실한 경험에 적극 투자하는 이유가 된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효율 높은 마케팅 채널로 활용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훨씬 더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전문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시각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소비에 매몰되어 있던 밀레니얼 세대에게 경험은 다양한 오감 중심의 자극을 총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만족감을 제공한다. 디지털 공간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현장에서 직접 만지고 느끼며 이들은 더 신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넘어 동영상을 주된 콘텐츠 포맷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밀레니얼에게 이제 시각을 넘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동시에 자극하여 충족시키는 공감각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대가 비로소 도래하고 있다. 🌈

햄버거

이용재 | 음식평론가



햄버거의 정체성이자 매력의 원천은 '부드러운 빵'이다. 부드러운 패티를 부드러운 빵 사이에 끼워 만든다.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시도에서 햄버거의 중심인 패티가 태어났다. 미국이 고향이라 여기기 쉽지만, 햄버거의 본관은 중앙아시아이다. 타타르족이 먹던, 달리는 말 안장 밑에 두어 부드러워진 날고기가 시초라고 한다. 이를 뿌리로 삼아 우리의 육화와 비슷한 스테이크 타타르(Steak Tartare)가 탄생했고, 러시아와 독일을 거쳐 18세기 말, 함부르크 출신 이민자들에 의해 '햄버그 스테이크(Hamburg Steak)'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 오늘날의 햄버거가 되었다.

햄버거도 원래 두 조각의 식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 먹는 샌드위치의 일종이었다. '번(bun)'이라 부르는 햄버거 특유의 둥글고 부드러운 빵은 1916년 미국인 월터 앤더슨이 발명했다. 좋거나 싫거나 세계의 음식으로 자리 잡다 보니 햄버거에도 원조 논쟁이 붙어 다닌다. 미국의 위스콘신(Wisconsin)과 오키오(Ohio), 코네티컷(Connecticut) 주가 서로 햄버거의 원조라고 주장한다. 지금도 코네티컷 주 뉴 헤이븐의 <루이스 런치(Louis' Lunch)>에서는 1895년까지 전통이 거슬러 올라간다는 자칭 원조 햄버거를 판다. 두 장의 토스트 사이에 특유의 수직 그릴로 구운 패티를 끼운 샌드위치이다.

유명세의 대가로 햄버거가 흥역을 치르는지도 오래되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는 오명이 늘 따라다닌다. 물론 햄버거를 비롯한 패스트푸드는 음식과 건강을 넘어, 삶 그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주자인 맥도날드는 음식의 구성요소를 따로따로 조리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전까지는 한 사람이 패티도 굽고 빵에 소스도 바르고 양파도 썰어 음식을 완성했는데 이젠 패티만 굽는 사람, 토마토만 썰는 사람이 각각 따로 있다. 자동차 조립과 같은 생산 라인의 공정(line assembly)을 차용한 시스템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렇다고 햄버거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 보기는 어렵다. 단백질과 지방(고기)과 탄수화물(빵)의 조합이니 맛이 없을 수가 없고, 영양의 균형도 의외로 잘 맞는다. '인앤아웃 버거'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파이브 가이스 버거', 한국에도 진출한 '웨이크셰크 버거' 등 햄버거의 기본 문법은 지키면서 패스트푸드의 명예는 벗어난 고급 버거는 물론 소위 '수제 버거'도 대안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런 햄버거를 먹을 때는 패티를 기준으로 네 가지 요소를 본다.

첫 번째는 패티의 재료와 질감이다. 정육과 지방의 비율 8:2를 출발점으로 삼고, 쇠고기 맛이 진한 목심(chuck) 같은 부위를 약간 입자가 살

아 있도록 갈아 패티를 만든다. 부드럽지만 약간의 '씹힘'이 양념처럼 살아 있으면 좋다.

두 번째 요소는 크기이다. 패티는 익히면 지방과 수분이 빠지므로 빵보다 조금 크게, 대략 10% 크게 빚으면 딱 맞는다. 또한 구웠을 때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도록 가운데를 빚은 뒤 가운데를 살짝 눌러줘야 한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빵보다 작고 볼록해 균형이 안 잡힌 버거가 된다. 세 번째 요소는 부피이다. 수제 버거는 대체로 두툽함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패티도 무겁고 채소 등 다른 재료도 많이 끼워 넣는다. 하지만 햄버거도 결국 샌드위치이므로 가급적 손으로 집어 입으로 베어 물 수 있을 정도의 부피 안에서 만들어야 편하게 먹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도가 중요하다. 갓 구운 빵, 갓 지은 밥 등 금방 만든 뜨거운 음식은 그 생생함으로 사랑을 받는데, 바쁘게 만들다 보니 패티가 '레스팅'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빵 사이에 끼워져 나오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 패티도 고기이므로 구운 뒤 잠시 두어야 먹기 편한 온도로 내려가는 것은 물론 베어 물었을 때 육즙이 왈칵 뿜어져 나와 혀나 입천장을 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또한 함께 등장하는 양상추나 토마토 등의 채소의 숨을 죽여 아식함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패티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은 것이 좋다. 



무등산 초입에 자연에 순응하듯 동지 튼 격조있고 수묵향 가득한 뮤지엄

이영란 | 미술 칼럼니스트 / 뉴스핌 편집위원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땀을 스치는 바람이 더없이 상쾌해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 집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곳이 광주 무등산 초입의 '의재미술관'입니다. 복잡한 도심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자리 잡은 이 미술관은 건립한 지 20년을 헤아리지만, 사람들에게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대기를 대표하는 한국 화가 거장 의재(毅齋) 허백련(1891~1977) 화백을 기리는 미술관으로, 요즘에는 고풍스러운 산수화를 좋아하는 이들이 드물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이 미술관은 건축이 특별히 유별나지 않고, 요란한 기획전을 앞세우지도 않아 입소문을 크게 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그림을 좋아하는 이들, 호젓한 산자락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선 '언제든 꼭 다시 찾고 싶은 미술관'입니다. 마침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2018 광주비엔날레'가 막을 올렸으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엔날레도 관람하고, 의재미술관도 관람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루쯤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다면 미술관 바로 옆의 증심사도 둘러보고, 무등산



1 의재 허백련 화백의 작품이 내걸린 전시실

(1187m) 산행도 해보면 어떨지요.

의재미술관은 증심사 초입의 주차장을 지나 넓고 평탄한 숲길을 오르면 당도합니다. 시내에서 증심사까지의 도로는 '의재로'로 명명돼 있지요. 전철 또는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모두 증심사 공용주차장에서 하차해 도보로 15~20분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수목이 우거진 넓고 완만한 등산로를 걷다 보면 왼편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단아한 현대건축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스듬한 경사지 지형을 그대로 살린 의재미술관입니다.

유리와 목재, 노출콘크리트로 외벽을 마감한 의재미술관은 미술관치고는 건물이 크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평범합니다. 수풀 속에서 조용히 손짓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미술관은 의재의 예술세계를 잘 반영한 데다, 무등산의 능선과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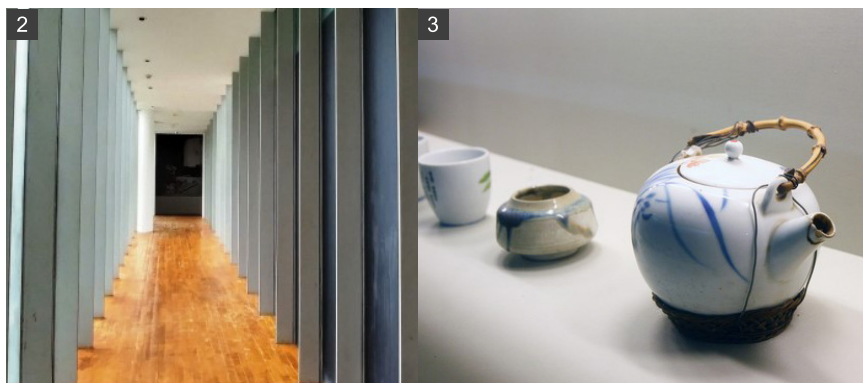
받았습니다. 덤덤하면서도 자연에 순응하는 듯한 간결한 디자인이 호평을 받은 거지요. 미술관이 세워진 지 20년이 됐음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기본에 충실한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의재미술관이 무등산 자락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의재 선생 때문입니다. 전남 진도 출신인 의재 허백련은 일본서 유학하고 돌아와 서울에서 크게 명성을 떨쳤지만, 곧 남도로 낙향해 무등산 초입에서 화업을 이어갔습니다. 최고의 스타작가로 부와 명예를 거머쥔 수 있었으나 그는 도인(道人)처럼, 또 자신의 그림처럼 맑고 담백하게 살았지요.

한국의 산과 들을, 그 춘하추동을 화폭에 그윽하게 담았던 의재는 단순히 서화 작업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해방을 맞던 1945년, 피폐해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업기술학교를 설립해 지도자를 육성했습니다. 애천(愛天)·애토(愛土)·애인(愛人)라는 삼애(三愛) 사상을 제창하고 실천하려 했지요.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자는 사상입니다. 미술관 전시동 옆에는 옛 농업학교 교사(校舍)를 손봐 만든 '삼애헌'이란 건물이 있는데 현재는 차 문화 교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선생은 무등산 기슭에 차밭을 일궈는데 미술관 뒤뜰에서 10분쯤 올라가면 흰하계 트인 녹차 밭이 나옵니다. 5만 평 남짓의 '춘설다원'입니다. 의재는 “우리 민족이 차를 마심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맑은 정신으로 판단해 실천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며 차 문화 보급에 진력했습니다. 무등산록에 드려온 구름과 산 기운을 받고 자란 이곳의 춘설차(春雪茶)는 맛과 향이 깊고 깨끗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녹차 밭 앞에는 의재의 숨결이 느껴지는 춘설헌과 의재 묘소가 있습니다. 춘설헌은 선생이 거주하며 명작들을 탄생시킨 산실입니다. 석아 최원순 선생 등이 머물렀던 터에 의재는 작고 아담한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광주시는 1986년 이 건물을 역사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선생은 시서화 동호회인 연진회(鍊眞會)를 조직해 광주가 예향으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기도 했지요. 작은 주막에도 동양화 한 점쯤은 어김없이 걸려 있을 정도로 서화 예술이 발달했던 곳이 남도입니다. 특히 윤림산방으로 유명한 진



2 수직의 선들이 이어져 간결한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복도

3 의재가 쓰던 주전자와 찻잔을 전시한 미술관 다완 코너

도 출신의 의재는 조선 후기 남종화의 태두인 소치 허련(小痴 許鍊)의 종고손입니다. 소치는 추사 김정희의 제자로, 시서화에 모두 능해 '삼절'(三絶)이라 불렸습니다. 의재는 소치의 아들인 미산 허형으로부터 묵화의 기초를 배웠고, 신학문을 익히려고 일본 메이지대로 유학을 떠나 3년간 법학을 배웠지만, 가슴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예술에의 열정에 따라 진로를 바꿨습니다. 일본에서 남종화의 대가 고무로(小室翠雲)에게 사사한 후 귀국한 그는 제1회 조선 미술전람회에 '추경산수'를 출품해 수상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1938년 광주로 내려와 창작활동과 함께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선생의 호인 '의재'(毅齋)는 '똥똥하다, 굳세다'라는 뜻으로, 그의 삶의 궤적과도 너무도 잘 어울립니다. 실제로 의재는 통찰력 있는 사상가인 동시에, 치열한 예술가, 실천적 계몽가였습니다. 1974년 3월 어느 봄날, '25시'의 작가 게오르규가 춘설헌을 찾아 의재에게 “난초는 동양인의 마음과 같았는데, 대하기 까다롭다는 뜻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재는 “아닙니다. 조용하고 깊이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난을 선비정신이라 합니다”고 답했다는군요.

의재미술관 전시동 안으로 들어서면 커다란 통유리 너머로 바깥의 자연풍경과 햇살이 미술관 내부로 살포시 들어옵니다. 여섯 폭의 병풍처럼 구획이 나뉜 유리에 바깥의 풍경이 그대로 투영되며 6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타오를 듯 붉게 물든 단풍과 노란 은행

잎이 바람에 흔들리자 미술관 로비는 움직이는 영상을 틔운 것 같네요. 실제 전시실로 들어가면 자연이 만든 그림과는 또 다른, 거장의 걸출하면서도 단아한 수묵산수화들이 시선을 잡아끅니다.

미술관 측은 의재가 남긴 수묵화들을 번갈아 교체하며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도의 봄·여름·가을·겨울을 담은 그림들은 격조가 남다르고, 그 표현이 압축적이어서 그가 왜 '남종화의 마지막 대가'인지 알게 해줍니다. 의재가 남긴 걸작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이 미술관은 의재의 손자이자 현대적 화풍의 매화 그림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허달재 화백이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술관 입장료는 어른이 2천 원, 청소년은 1천 원이고, 7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입니다.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의 미술관 박물관 입장료는 5분의 1 수준입니다. 대가의 예술혼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 좋긴 하지만 미술관 측의 적자가 깊어질 듯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시작들을 음미한 후 등산로를 따라 조금 더 올라가면 증심사가 나옵니다. 증심사의 창건연대는 860년이지만 화재 등으로 소실돼 여러 번 다시 지어졌습니다. 대웅전 뒤편의 오백전은 증심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1609년 경에 건립됐다고 하는군요. 증심사에도 가을이 한창입니다. 의재미술관에서 봤던 의재의 추경산수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의 산수와 작품 속 산수가 스르르 오버랩되며 가을은 이렇게 또 깊어가는군요. 

위원동정

◆ **황용석 위원,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역차별 이슈> 세미나 개최**
황용석 중재위원(서울제3중재부,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은 9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역차별 이슈,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역외 포털 규제 현황과 법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강소영 위원, '2018 부산국제광고제' 심사위원 위촉·사회 진행**
강소영 중재위원(서울제7중재부, 서울디지털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2018 부산국제광고제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강 위원은 젊

은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영스타즈' 부문에서 심사와 사회를 맡았다.

◆ **이광범 위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범 홀> 기념홀 지정**

이광범 중재위원(서울제8중재부,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의 이름을 딴 '이광범 홀'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생겼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9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3층 301호를 '이광범 홀'로 명명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위원회 뉴스

◆ **외국 언론인 연수**



위원회는 9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 6층 강의실에서 인도 언론인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인도의 국영통신사 PTI를 비롯해, The Hindu, Times Now 등 인도 유수 언론사의 차세대 지도자 8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언론분쟁해결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2018년도 제2차 예비법조인 연수 실시**

위원회는 9월 7일 2018년도 제3차 변호사 연수를 실시했다. 현직 변호사들에게 조정제에 대한 실무와 노하우를 전달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변호사 연수에는 전국의 변호사 23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양철한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의 '판례로 살펴보는 언론 소송사건의 법적 쟁점', 양재규 변호사(대전사무소장)의

'최근 언론 조정사건의 경향과 특징'에 대한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다.

◆ **계간 <언론중재> 가을호 발간**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가을호(통권 148호)가 9월 30일 발간됐다. <Focus on Media> 섹션에서는 "통일언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동아일보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의 「북한 보도의 익명성 문제: 실태와 대안」 등의 기고글이 수록되어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개최**

위원회가 '우리 결의 언론분쟁해결사, 언론중재위원회'를 주제로 주최한 캐릭터 공모전에서 6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독창성이 뛰어나고 완성도 높은 다수의 작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2차 심사에는 1,400여 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상은 경청과 공정을 주제로 위원회의 기능을 묘사한 정윤지 씨의 작품 '어니'에 돌아갔다. 위원회는 9월 20일 시상식을 열어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test.pac.or.kr/main/index.a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Close-Up

단청(丹青)

햇살 가득한 가을날, 가까운 고궁이나 절을 찾아가 보자. 처마 밑으로 파고든 보드라운 햇살에 드러나는 색의 군무를 느껴보자.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홍(紅).

다섯 가지 색은 기묘한 문양에 어우러져 현란함을 뽐낸다. 단청이라는 하나의 소재에 수많은 문양과 다른 그림들이 펼쳐진다. 그 숫자만큼 제각기 다른 상징과 의미, 이야기가 있다. 출발은 비바람과 벌레로부터 나무가 썩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왕의 권위와 종교적 깊이의 상징이 되었다.

그 화려함 때문에 궁궐이나 사찰, 서원 등을 제외하고, 민가에서는 이런 색칠이 법으로 금지된 적도 있었다. 예술성 깊은 단청장의 팍과 또, 여기에 들어가는 천연물감의 비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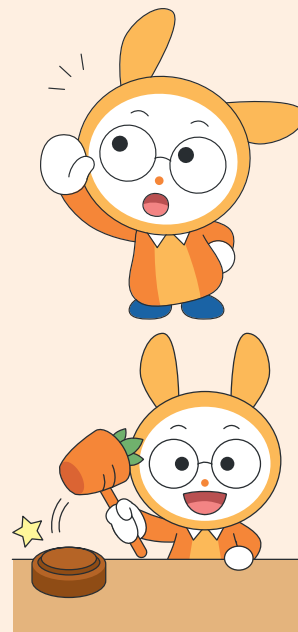
글·사진 | 이훈구 동아일보 사진부 기자 ufo@donga.com

언론중재위원회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합니다!

대상 어니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만나요



“어니”는 쫄긋한 귀로 갈등과 분쟁이 생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정하게 중재해주는 언론분쟁 해결사입니다.

금상

<http://www.pac.or.kr/kor/main/>



은상



동상

